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6, 마가복음 3:1-19, 치유, 요약 및 12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마가복음 3:1-19, 치유, 요약, 그리고 12에 대한 6번째 세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복음을 계속 연구하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3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면에서 마가복음 3장은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멈춘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가복음 2장 마지막에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의 의도를 선언하심으로 끝났습니다. 안식일의 신성한 의도는 인류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간, 인간이 신의 의도 대신 안식일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며, 자신이 무엇이 옳고 적절한지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인데, 그들의 직업, 그들의 일과 사명은 무엇이 율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우리는 마가복음 3장을 들여다보고, 이 안식일 논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3장의 처음 여섯 구절,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때에 그는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예수를 고발할 이유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를 고칠지 보기 위해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합당한가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그들을 둘러보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깊이 괴로워하며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를 고발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즉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회당에 들어간 또 다른 시간의 소개와 함께 또 다른 장면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이전 에피소드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안식일 위반으로 고발했던 것을 감안할 때, 마가는 암묵적으로 이것이 같은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가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바리새인과 교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회당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름진 손을 가진 이 사람을 고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2성전 유대교에서 적어도 미슈나를 믿는다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의료적 이익을 행하는 문제가 안식일에 허용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맥락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미슈나는 생명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그 위험이 안식일보다 우선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요구 사항을 우선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산사는 안식일에 일할 수 있었는데, 이는 출산하는 여성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할례는

안식일에 허용되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미슈나에 따르면 할례는 신성한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의 행위였고,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안식일에 행하기에 적절한 행위였습니다. 제가 무대를 설정한 이유는, 제2성전 유대교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있던 분위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배경을 설정하기 위해, 이 남자의 생명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회당에 있는 남자는 그날 회당에서 죽을 위험이 없으며, 우리는 그 문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식일에 치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한 치유의 다른 두 가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가버나움에서의 그날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회당 한가운데에 일어나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회당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에 허용되는 행위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그것은 보호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날 늦게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그녀는 열병을 앓고 있었고, 예수는 안식일에 그녀를 고쳐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적인 사건이었고,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다는 표시는 없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독자인 우리는 예수가 이미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 완전히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가 기적을 행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 회당에 있고, 거기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예수를 고발할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안식일에 이 회당에 왔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는 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는 왜 제자들이 금식하지 못하게 허락합니까? 우리는 이런 비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가르침을 받지 않기 위해 회당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은 그가 안식일에 그를 고칠지 보기 위해 그를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관심도 의도도 없고, 이 사람이 치유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비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왜곡된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질문을 합니다. 그는 토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서십시오.

그리스어에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하려는 일을 매우 대중적인 사건으로 만들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손이 시든 남자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다음, 그곳에서 그를 고쳐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무엇을 하실지, 어떤 이유로 하실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비된 사람이 매트에 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치유를 행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마비된 사람의 치유를 죄를 용서하는 그의 권능에 대한 선언과 통합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매우 공개적으로 이 치유를 행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남자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하려는 일을 안식일의 목적에 대한 그의 질문과 연결했습니다

으로, 그는 질문으로 두 진영을 설정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허용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허용되는 것은 무엇이고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의 맥락에서 그것을 제시합니다. “법에 따라”는 모세의 법과 성경의 이해, 그리고 오래된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설정합니다. 안식일에 허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이제, 저는 그 질문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에도 악을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안식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본질은 거의 완전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거의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볼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는 것, 선을 정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대한 질문을 주장하는 것조차도 일반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 둘을 함께 줄 세우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결혼 잔치 때 금식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생각인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암시는, 안식일에 어느 것이 합법적인가?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니면 죽이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질문을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선을, 죽이는 것과 악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질문이었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미슈나와 랍비 유대교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에 정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결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살인하는 것은 확실히 결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선과 악을 취하고, 생명을 구하고, 죽이는, 매우 극명한 이분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행에서 여기 줄지어 있는 것이 악과 죽이는 것이 함께 일하고, 선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함께 일한다는 매우 강력한 이분법이라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그는 이 이분법 안에서 행하려는 이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묵을 지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러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합법인가?

그리고 그를 시험하려는 자들은 침묵을 지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은 예수가 세운 이분법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 부분에서 뛰어난 토론가입니다. 그는 두 가지 범주를 설정했고, 암묵적으로 그는 자신을 삶을 긍정하고 선을 긍정하는 범주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에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사악함과 살인의 범주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답하는 대신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것과 얼마나 거리가 멀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심지어 지지를 표명하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예,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 안식일에 무엇이 허용되는지,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해나 토론에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5절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는 분노하며 그들을 둘러보셨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에 깊은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매우 드문 감정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는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의 인간적 특성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분노를 분명히 표현한 유일한 때입니다. 예수가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앞부분에는 분노나 연민에서 동기를 부여받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텍스트 변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매우, 매우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에 화가 났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그들의 완고함에 화가 났습니다. 더 선호되는 번역은 완고함 대신 그들의 마음의 강인함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강인함은 저항을 전달하는 매우 관용적인 방법입니다. 신에 대한 저항은 종종 영적 실명을 동반합니다.

구약에서 마음이 강팍했던 집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완강하게 저항했던 집단이었고, 그들의 완강한 저항의 결과는 그들이 보거나 이해하는 데 더 무능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법이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 4장, 7장, 8장에서 봅니다. 파라오, 여기서는 파라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7장과 13장. 바울은 로마서 11장과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매우 유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여기에 그가 방금 한 말을 확증하기를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강인함을 나타냅니다. 이제, 마음의 강인함,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화를 내심으로써,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일, 즉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언어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파라오 편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유배와 관련하여 대의와 적들 편에, 이스라엘 사람들, 완악해진 유대인들 편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2장에서 예수께서 축성된 빵과 다윗에 대한 질문의 상태를 논의하실 때 이것을 보았고, 여러분은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마가복음의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교도적인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광야에서 내내 투덜거리고 불평하던 사람들과 연관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현재의 지도부를 구약성서에 나오는 악당들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노의 동기가 또한 예수께서 이 집단들에게 내리실 심판의 언어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의 결과로 신성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에 찬 눈으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돌아보며, 그는 바로 거기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마치 이런 작은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사람이 그냥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여기로 올라오라는 요청을 받았고, 지금은 안식일에 대한 큰 종교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매우 공개적인, 아시다시피, 이것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치유는 매우 공개적이고 완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뺐었고 그의 손은 완전히 회복 되었습니다 .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말라버린 손, 주름진 손, 일할 수 없는 손, 잡을 수 없는 손, 그리고 이제 완전히 회복된 손이 온전히 보였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 우리가 보아온 것과 일치합니다. 예수께서 무언가를 하실 때, 그것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가 베드로의 시어머니를 고쳐주었을 때, 그녀는 즉시 일어나서 섬겼습니다. 악령들이 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입을 다물고, 그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완전히 떠납니다. 여기에는 점진적인 회복이 없습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들이 그가 할지 궁금해하던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선동가-도발자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기 온 이유를 알고 있고, 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좋은 행동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사악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안식일에 대해 말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선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을 회복시키는 것, 그 사람에게 선을 가져오는 것, 회복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식일 동안에 대한 이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종말론적 안식일 휴식에서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지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라버린 손을 갖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매우 공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반대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에 일어나는 그토록 거대한 회복의 전시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선과 삶을 유지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흥미진진합니다. 그런 다음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회당을 떠나 헤롯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헤롯당원은 신약에서 두 번만 등장합니다. 이 무리는 헤롯당원이라고 불리고,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다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제 헤롯당원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헤롯 대왕의 왕조인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옹호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이 그 뒤를 이어 통치한 두 아들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헤롯당은 로마에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인에 의해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원로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크 안토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헤롯과 로마인의 동맹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통치를 확립하려 했을 때 시작되었고, 헤롯당이 와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헤롯당과 헤롯 가문에 매우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와서 그를 도우면서 올바른 사람을 지지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호의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헤롯을 생각할 때, 처음에 헤롯은 완전히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카비의 생각처럼 완전한 유대인 혈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인에 의해 통치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이 그렇게 큰 진술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문제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와 완전한 동맹을 맺고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헤로데 가문이 로마와 연합한 왕조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와 동맹을 맺은 귀족에 매우 반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독립 국가로 서고 엄지손가락 아래에서 벗어날 회복의 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당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매우 반대했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한 일부 결정에 대해 약간 뒤로 물러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부재한 것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헤롯당이 사두개인과 다른 지배 계급이었던 것처럼 로마와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시골과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들이 예수님과 대립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예수님과 연합하거나 로마 편을 드는 그들의 대적들과 연합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헤로당과 연합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는 진술을 접하게 됩니다. 헤로당과 바리새인 모두 예수님을 위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은 부분은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니까? 예수를 죽이려고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방금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어느

것이 합법인가? 생명을 구하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안식일에 헤롯당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들이 얼마나 강박해졌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불법이라고 인식하는 일, 즉 살인을 모의하는 일을 할 것이고, 안식일 내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커지는 대립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사소한 다툼이 아닙니다. 선은 뚜렷하게 그어졌습니다. 헤로데당과 연합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곳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부터 12장은 흥미로운 종류의 요약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짝을 이룬 안식일 논쟁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마가복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상기시켜주는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부터 12장까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로 물러가셨고 갈릴리에서 온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듣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아와 요단 건너편과 티레 와 시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군중 때문에 그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도록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기 때문에 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를 만지려고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악령이 그를 볼 때마다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격히 명령했습니다. 이 진술은 마가복음 1장 14~15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요약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지만, 지리적으로 요약을 확장하여

동쪽과 북서쪽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시다면요

유대는 남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두메아는 에돔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라틴어 이름을 사용한 것은 흥미로운데, 그가 편지를 쓰는 청중이 라틴어 이름에 더 익숙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에돔은 에사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곳은 에돔 사람들이 정착한 지역입니다. 요르단 강 너머는 요르단 강의 동쪽입니다.

이것은 북쪽의 데카폴리스와 남쪽의 페레아 지역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마가가 그의 명성이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의 명성이 갈릴리 너머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방인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군중이 그를 만지려고 했다는 이 언급은 예수를 만지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주변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이디어가 신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손수건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만지면, 그들은 그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림자가 누군가를 그냥 지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열광, 때로는 미신적인 열광이 이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런 요약 진술을 얻습니다.

예수는 치유하고 있다. 군중이 그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는 배에 올라타고 있다.

그 때문에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온갖 종류의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엑소시즘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것을 얻습니다 : 악령이 그를 볼 때마다,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숭배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권위에 대한 인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엑소시즘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들은 예수를 봅니다.

그들은 그의 앞에 복종하며 엎드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들은 모두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이런 다양한 변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예수에 대한 악마의 인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신의 아들로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신의 아들이라는 언어는 구약성서에서 온갖 다른 인물에게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기껏해야, 악마들이 예수가 그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권위에 부합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심판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의 손에 있는 파괴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의 어느 정도까지든, 확실히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는 요약문을 얻습니다.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지배력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예수가 누구인지 전하는 자들이 악마의

세력에 속한 그 활동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침묵시키고 있는 악마에게서 나오는 그런 행동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약 진술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약 진술 후에, 13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12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12가지 선택은 흥미로운데, 1장의 요약 진술 후에 4가지 선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발전하는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요약 진술과 선택, 선택, 일종의 다음 단계의 진행 사이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여기서 12가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과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생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 효과가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과 12명 사이에도 구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들, 추종자들,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4명의, 일찍 선택된 특별한 4명, 그리고 그 4명 중 3명의 제자들로 이어지는 이런 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12명에 대한 강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12명일까요? 12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12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대표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12를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이 언약 공동체가 이제 정의되고, 이스라엘이 이 12를 통해 어떤 식으로 정의된다는 생각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12명을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됩니다. 우리는 12명이 예수님이 하던 것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느 정도 성장이 있는 듯합니다.

이 순간 이후, 마가복음에서 제자라는 용어는 거의 전적으로 12의 12부분을 가리키는 데 사용 됩니다 . 그래서 이제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이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2가 대표적 지도자라는 역할은 마가복음에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22장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더욱이, 이것이 예수에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자신을 12명 중 한 명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는 12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메시아적 자기 인식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논쟁되는 것 중 하나는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적 인물로 얼마나 여겼는지, 아니면 초기 교회가 예수를 돌아보며 그에게 메시아적 사상을 부여했을 뿐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메시아적 자기 인식이라고 불리는 사상입니다.

글쎄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12를 택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의 백성이 누구인지 지정하고 12 지파를 선택하고 12 지파를 식별하고 언약 백성을 식별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12를 택하는 이 행위가 예수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12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일은 단순히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12명을 택하여 그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명을 임명하는 것을 볼 때, 3장 14절에서 주목하세요, 그는 12명을 임명하여 사도로 지명하셨습니다. 사도는 일종의 사절, 파견된 자, 대표자라는 개념으로, 그들이 그와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일이었고, 그는 그들을 보내어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한을 갖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첫 번째 임무가 그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하지만 그를 따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는 그들이 그의 주변에 있기를 원하며, 그 목적은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 즉 전파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동일한 권위를 갖고, 귀신에 대한 그의 권위를 갖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권위 관계에서 항상 세 가지 요소, 즉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권위의 삼위일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서 그들이 전파하러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가르치는 권위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를 갖는 것은 여기에 치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크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에 이르면 제자들도 치유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1장 마지막 부분,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나가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세 번째는 어느 정도 가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마가복음 6장에 이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흥미로운 메모도 목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지만, 그가 임명한 12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사람.

Simon이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항상 목록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Simon이 실제로 12명의 리더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종종 그들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이 무언가를 말할 때, 그가 베드로로도 알려졌음을 봅니다. 거기의 이름은 심지어 케파와 페트라스와 같고, 둘 다 바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전체를 위해 말하고 있으며, 그는 리더십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마크가 형제들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임명한 12명이 있습니다.

시몬, 그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제베데오와 그의 형제 요한의 아들 야고보. 그런 다음, 18장에서 그는 그들을 천둥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앤드류. 흥미로운 점은 앤드류가 피터의 형제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었을 것은 사이먼과 그의 형제 앤드류, 제임스와 그의 형제 존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을 흠여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크는 그들을 흠여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불려졌습니다.

Simon과 Andrew는 동시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James와 John도 동시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Mark는 Andrew를 형제 쌍에서 2위가 아닌 4위에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그 답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해 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 네 무리가 있는 반면, 세 무리의 특별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보지 못한 것을 목격한 세 무리의 특별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허락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변형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겐세마네와 기도회 도착했을 때조차도, 그들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무리는 더 큰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것입니다.

저는 마크가 여기 나열한 내용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고유한 가치와 존재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사람, 이 네 사람에 대해 궁금하다면,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천둥의 아들로 언급한 것은 아마도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의 성격을 언급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당신이 그 언어를 사용할 때, 무언가의 아들, 그 무언가가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이나 그 사람에 대한 무언가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들을 천둥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약간의 화를 냈거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거나, 아마도 시끄러운 성향을 가졌거나, 그와 관련된 무언가를 가졌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생각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죽은 첫 사도입니다. 그는 순교한 첫 사도입니다.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요한 복음, 요한 서신,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의 이분법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순교한 사람과 끝까지 순교한 사람 사이에요. 앤드류, 우리는 앤드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그가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몬을 예수에게 데려온 사람은 안드레였는데, 저는 그것이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목록의 마지막은 그를 배신한 유다 이스가리옷입니다. 배신자는 열두 명 중 한 명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역사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웅이 선택한 특별한 열두 명을 만든다면, 영웅인 예수가 잘못 선택하는 이야기를 만들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는 열두 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그 열두 명 가운데 배신자로 알려질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스카리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키리앗 출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암살자 집단이나 열성과 집단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가 온 지역인 키리앗을 의미할 것입니다. 키리앗은 유대에서 온 곳이며, 이는 그를 유대에서 온 유일한 제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지리적 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3장에서 내부 그룹과 외부 그룹에 대한 설명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헤롯당과 연합한 명확한 적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해 열두 명의 그룹을 분리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움직임의 구성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성령 모독과 엑소시즘의 능력에 대한 토론 중에 누가 예수의 가족이고, 누가 가족이 아니며, 누가 예수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될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3:1-19, 치유, 요약, 그리고 12에 대한 세션 6입니다.